

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향한 민중의 발걸음

3.1만세운동에서부터 촛불시민혁명까지

4강_국정농단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외침,
촛불시민혁명과 향후 과제

- 일시 : 2018. 11. 19(월) 19시
- 장소 : 홍사단 지식나눔실

■ 강좌 개요

- 일시 : 10월 29일(월) ~ 11월 19일(월) * 매주 월요일 오후 7~8시 30분
- 장소 : 흥사단 강당(또는 지식나눔실)
- 주관 : 흥사단교육수련원 / 주최 : 흥사단
- 후원 : 대통령직속 3.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
- 문의 : 전화(070-7099-1704)

■ 강좌 구성

차시	일자	주제	강사(안)
1	10월 29일(월)	일제 탄압에 항거한 민족적 평화운동, 3.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	장석흥 (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)
2	11월 05일(월)	반독재, 반부정을 향한 대중의 쫓기, 4.19혁명과 제2공화국	김동춘 (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장)
3	11월 12일(월)	아래로부터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, 6.10민주항쟁과 9차 개헌	한상희 (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4	11월 19일(월)	국정농단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외침, 촛불시민혁명과 향후 과제	김호기 (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



식 순



□ 사회 : 장동현(흥사단 교육수련원 부원장)

- 개회
- 제4강 국정농단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외침,
- 촛불시민혁명과 향후 과제
□ 강의 : 김호기 (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)
- 질의·응답
- 정리 발언
이은숙(흥사단 교육수련원 원장)
- 폐회



촛불시민혁명과 향후 과제

김호기 (연세대 사회학과 교수)

차 례

1. 촛불집회의 의의
2. 대한민국의 선 자리
3. 대한민국의 갈 길

촛불집회의 의의

• 촛불집회와 한국사회

- 한국사회에서 촛불집회는 2002년 두 여중생이 주한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것에 대한 항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
-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반대해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크게 일어난 이후 한국 시위의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 잡음
- 촛불이 상징하는 것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음
- 촛불집회는 과거 사회운동의 전투적 방식과 달리 평화적이고 축제적인 방식으로 시민 다수를 집회에 참여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
-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 제3차 담화가 발표된 이후 열린 12월 3일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서 232만명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 현대사에서 최대 규모의 집회를 기록했음
-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때까지 누적 인원 총 1600만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했음

3

촛불집회의 의의

• 촛불집회의 다섯 가지 특징

- 1) 주체 : '시민'이 주도한 사회운동
 -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이차적 주체이고, 세대·지역·이념을 넘어선 광범한 시민들이 촛불집회의 주역
- 2) 방식 : 사회적 저항이라기보다 '문화적 축제'인 사회운동
 - 대규모 축제(광장의 공연, 퍼포먼스)이자 평화적 시위(거리 행진)
- 3) 방법 : SNS가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된 사회운동
 - 시민들은 SNS를 통해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 의식을 키웠고 광장으로 집결
- 4) 목표 :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낡은 체제, 즉 '양시영 레짐'의 청산을 요구한 사회운동
 -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은 박정희 체제가 남긴 부정적 유산과 결별하려는 시민들의 요구가 담겨 있음
- 5) 성격 : 4월혁명과 6월항쟁을 계승한 '정치적' 사회운동
 -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퇴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·경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민들의 열망이 촛불집회를 통해 표출

4

촛불집회의 의의

• 촛불집회와 촛불시민혁명

- 진보적 시민사회에서는 촛불집회를 '촛불시민혁명'으로 명명
- 혁명이라는 이름이 사회운동이 가져온 결과를 주목해 판단하는 것이라면, 이번 촛불집회를 촛불시민혁명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
- 혁명이 국가 기초, 경제제도, 문화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면, 촛불 집회에 참여한 많은 이들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개혁이라는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
- 분명한 것은, 촛불집회의 참여자들이 낡은 체제의 청산과 새로운 체제의 구축, 즉 낡은 '대한민국 리셋(reset)'과 새로운 '대한민국 리빌딩(rebuilding)'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임

5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물질적 풍요의 시대, 우리는 행복한가?

지금까지 사회발전을 GDP
(국내총생산 지표)로 측정·평가

⇒ **행복, 삶의 질, 지속가능성**
지표로

행복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발전 수준 OECD



2016 OECD 더 나은 삶 지수 국가별 순위

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- **시대정신 (Zeitgeist)**

-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, 양식, 이념
-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'가치'의 집약

- **한국 현대사와 시대정신**

- 광복 (1945) -> 나라 만들기 -> 산업화 (1960-70년대) -> 민주화 (1980년대-최근)
- 세계화의 충격과 정보사회의 진전
- 신자유주의에서 포스트-신자유주의로

7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- **61년 체제와 97년 체제**

	61년 체제	97년 체제
세계사회	냉전	탈냉전
경제	발전국가	신자유주의
정치	권위주의	민주주의
시민사회	무정형의 시민사회	조직화된 시민사회
문화	공동체주의	개인주의

8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• 한국사회의 두 얼굴

1) 성공의 대한민국

- 선진국의 입구에 도달
-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모범 사례

2) 위기의 대한민국

- 선진국과의 격차 존재
- 저성장, 불평등, 사회갈등, 각자도생의 인과관계

9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• 한국사회의 현주소

1) 저성장 시대

2) 사회 불평등의 강화

3) 사회갈등의 구조화

4) 인구절벽의 가시화

5) 불안과 분노사회

10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• 외환위기 이후 계급과 세대의 사회변동

1) 계급의 사회변동

① 계급구성의 변화

- 다이아몬드형에서 모래시계형으로
- 중산층의 감소
-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내적 양극화 (정규직 대 비정규직)

② 계급의식의 변화

- 상층 : 상대적 보수성
- 중간층 : 상대적 진보성
- 하층 : 보수와 진보의 공존

③ 계급위치 -> 사회 양극화 -> 갈등 증대

- '두 국민(two nations)' 국가와 시민사회

11

대한민국의 선 자리

2) 세대의 사회변동

① 세대의 풍경

- 60대 이상 : 산업화세대 (1970년대와 그 이전)
- 50대 : 86세대 (1980년대)
- 40대 : 신세대 (1990년대)
- 20~30대 : 88만원세대 (2000년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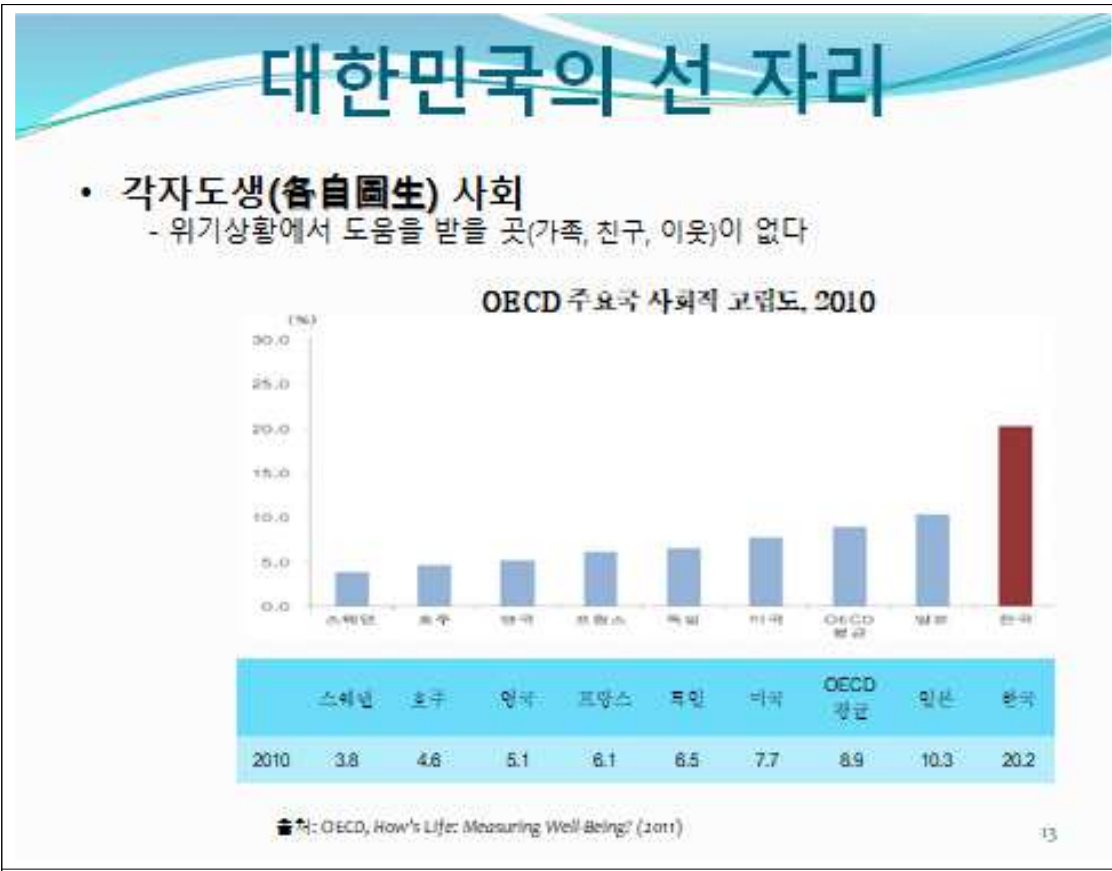
② 모든 세대의 키워드 : 불안

- 20~30대 : 청년실업, 고용불안정, 주거
- 40대 : 퇴출의 공포, 보육과 교육, 노후
- 50대 : 일자리, 은퇴, 노후
- 60대 이상 : 노후 빈곤, 건강, 고독

③ 불안 -> 불신 -> 분노

- 그만큼 변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고 볼 수 있음

12



13

- ## 대한민국의 갈 길
- **대한민국의 리셋과 리뉴얼의 10대 과제**
 - 1) **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개편**
 - 제4차 산업혁명의 빛과 그늘
 - 제4차 산업혁명 주도 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
 - 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중장기적 교육개혁
 - 2) **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**
 - 문제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
 - 청년 일자리, 노후 일자리, 비정규직 감소
 -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적 대타협

14

대한민국의 갈 길

3)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정 및 복지정책

- 전통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동시 강화
- 복지국가는 '경제적 교환'이라기보다 '정치적 교환'
- '증세 없이 복지 없다'

4) 인구 변동에 대응하는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

- 가시화되는 인구 절벽
- 저출산 대책 : 보육, 교육, 주거비용 경감, 시민사회적 수준에서 가치관 변화 모색
- 고령화 대책 : 고령인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, 연금 및 복지서비스 확대

15

대한민국의 갈 길

5) 계층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는 교육개혁

- 창의력과 인성 함양을 위한 공교육 혁신
- 기회균등선발제 확대와 패자부활제도 강화
- 평생학습사회 제도화

6)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

-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
-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과 재원의 지방 이양
- 비수도권 사회적, 문화적 삶의 질 제고

16

대한민국의 갈 길

7)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 및 에너지 정책

-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
- 안전사회를 위한 규제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
-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저탄소 사회 모색

8)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

- 모든 정책에서의 성평등 관점의 구현
- 여성 참여의 확대와 여성 일자리 증대
- 여성의 인권 보호와 안전 강화

17

대한민국의 갈 길

9)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정치개혁

- 87년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포함한 정당정치 개혁
-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
-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언론 개혁

10)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 외교 모색

-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북 정책 모색
- 통일과 동북아 번영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
- 근본주의와 폭력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는 국제 협력 추구

18

대한민국의 갈 길

- 결국 문제는 경제

- 1) 그것은 혁신과 불평등의 문제
- 2) 혁신 경제 구축을 위해서는
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 부문 재편을,
적극적인 과학기술 투자 강화를,
창의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중장기적 교육개혁을
모색해야 함
- 3)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
시장 안에서의 공정한 기업 생태계 구축과 소득주도 성장 추진을,
시장 밖에서의 재정정책과 복지정책 간 생산적 균형을
추진해야 함

19

대한민국의 갈 길

- 결국 문제는 새로운 경제를 위한 정치

- 1) '포용적 경제제도'는 '포용적 정치제도'를 요구
(Daron Acemoglu & James Robinson, *Why Nations Fail*, 2012)
- 2) 포용적 정치제도를 일구어나가기 위해선
새로운 정치 리더십을,
리더십과 팔로워십 간 생산적 관계를,
정치사회와 시민사회 간 거버넌스를
구축해야 함
- 3)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뉴얼은
'경제적 교환'을 넘어선 정치세력 간 '역사적 타협',
즉 '새로운 사회계약'을 맺기 위한 '사회적 대타협'을
추구해야 함

20

대한민국의 갈 길

• 국가와 개인의 '이중적 혁신'

1) 사회에서 개인으로 : '살림의 사회'의 구축

- '욕망의 사회'에서 '살림의 사회'로

	욕망의 사회	살림의 사회
정치	'두 국민' 정치	'한 국민' 정치
경제	신자유주의	포스트-신자유주의
국가-시민사회	법치적 권위주의	민주적 거버넌스
세계화	무한경쟁적 세계화	지속가능한 세계화

- 왜 '살림'인가

- 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'살림'
- ② 국민 다수의 가계 및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'살림'
- ③ 사회를 분단하는 분열과 해체를 넘어서는 통합으로서의 '살림'

21

대한민국의 갈 길

2) 개인에서 사회로 : '살림의 정체성'의 구축

- '욕망의 정체성'에서 '살림의 정체성'으로

	욕망의 정체성	살림의 정체성
문화	물신주의	인간주의
교육	경쟁력과 학벌주의	공공성과 패자부활전
개인-공동체	이기적 개인주의	연대적 개인주의
인간	수동적 주체	능동적 주체

- 왜 '정체성'인가

- ① 정체성이란 '마음', 이성과 감성의 통일체
- ② 다름(차이)을 인정하고 같음(연대)을 추구
- ③ 마음이 변화되어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,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

22



감사합니다

